#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오버랩

## (이사야 11:1~16)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오버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오버랩'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 남은 삶은 '임마누엘에 대해 응답하기'라는 약속을 할 수 있다면, 저에게도 힘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응답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승천하셨고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질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아름다운 표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묘사함에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도래하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에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왕으로 통치하실 메시아 왕국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영의 다양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언에 응답하여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한 가지 일의 결과로써 보편적인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를 바라보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넘어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계획과 추진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게 되는 것처럼, 나 개인의 삶에서도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에 대한 올바른 응답으로써 ‘나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편적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의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는 얘기는 다른 차원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혁명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생각만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담아내시는 그릇으로써 존재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표현능력으로는 불가능할 정도의 종말론적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의 어떤 사실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더 크고 더 중요한 분으로 체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도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개인적인 메시아 왕국을 체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보편적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의 종말이 임하든 임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메시아 왕국의 변화를 경험하는 동안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국에도 참여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성군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해야 할 텐데, 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하였을까요?
이사야 시대에 남 왕국 유다는 주변의 앗수르나 애굽 같은 강대국들에 비해 보잘 것 없는 나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보잘것없는 농촌의 촌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메시아 왕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변화가 초래됩니다. 이 일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앗수르적인 강력함이나 애굽의 화려함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군사력 경제력 인맥 학벌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은 결코 이러한 가치들 위에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고 학력이나 미모도 없고 집안도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혁명적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그릇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담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품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사시면서 하신 일이라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고스란히 모셔 들이는 인격적 캐리어이셨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 안에 모셔진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이고 우주적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담아내는 캐리어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혁명적 변화들을 일으켜나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하나님을 통한 혁명적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셨던 모습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담는 인격적 캐리어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바꾸어 가시며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한 조건이 3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라는 말은 호흡하다는 의미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호흡한다.’라는

말입니다. ‘경외’는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있으면 두려운 것은 공포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경외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경외하는 사람은 건강을 상실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경외함은 최고로 좋아함과도 같습니다. 최고로 좋아하기 때문에 없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모셔 들일 수는 있지만 육체로 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일 때에 갖는 감정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노후연금을 은행에 두둑하게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심하고 살았는데 이런저런 사기를 당하여 모든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건강을 자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또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3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메시아 왕국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만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루실 보편적 메시아 왕국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3절 하반부를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육체로 접하는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과 함께 마음에서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니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이렇게 육체로 접하는 것들에 대해 성전의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상번제의 어린양과 나를 동일시하므로 육체로 접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나를 일치시킴으로써 육체로 접하는 것들을 마음에 들여놓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상태를 유지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항상 하나님 경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육체를 통해 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그 누구도 이렇게 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육체로 접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돈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하나님 잃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사실을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길 뿐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붙잡고 해결하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고 바람 같은 영이신 하나님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는 항상 한 가지 대상을 중심에 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빠져나가신다면 망하고 죽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체감의 완성이 됩니다.

다만 세상에서는 예수님 외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로 접하는 문제들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이리저리 해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경외가 아닙니다.

애초에 마음에 세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기에,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혁명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온전히 체감해야만 합니다. 임마누엘에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오버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포개어져서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이것만이 하나님 경외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오버랩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오버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만이 이 세상에 대해 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이 세상에 대한 체감이 죽고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오버랩할 때에만 부활과 승천에도 오버랩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 경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삶에는 하나님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6~8절까지 비유로 나타납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라고 하였고, 9절에서는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떼와 함께 있는 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위태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버랩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바른 응답을 할 수 있다면 이 광경은 달라

집니다. 나는 어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리로 비유되는 인생의 어떤 위기를 겪을지라도 어떠한 해나 상함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노는 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인생에 위험천만하고 염려스럽고 불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버랩할 때에 삶의 어떠한 사건도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함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또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이신 예수님 아래에서 모든 인간들의 갈등구조가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며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점으로 해서 세상은 동심원을 그리듯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시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담는 인격적 캐리어가 될 수 있다면,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중심에는 예수님에게 오버랩 된 내가 존재하게 되고, 나와 오버랩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 안으로 모셔 들이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중심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철저히 오버랩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는 캐리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돈 권력 학벌 가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다 나라는 로마제국의 식민지 중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 유다 땅에서도 변방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인구 중 단지 9%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에 로마가 뒤집혀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의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버랩 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조차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심으로 손을 뻗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얼핏 정치적 성과로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중심에는 아무도 모르는 두메산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임마누엘에 응답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오버랩하는 한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오버랩하는 그 한 사람을 중심에 놓으시며 미국과 중국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점이신 예수님에게 오버랩 되어서 가는 곳마다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놀라운 은총적,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시는 삶이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에게 오버랩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혁명적 변화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